

**Back to the beginning – Genesis – Sermon Notes**

Title: “3. Creation days 4-5”

Scripture: Genesis 1:14-23

Date preached: January 18<sup>th</sup> 2026

Scripture: Genesis 1:14-23

14 Then God said, “Let there be lights in the firmament of the heavens to divide the day from the night; and let them be for signs and seasons, and for days and years; 15 and let them be for lights in the firmament of the heavens to give light on the earth”; and it was so. 16 Then God made two great lights: the greater light to rule the day, and the lesser light to rule the night. *He made* the stars also. 17 God set them in the firmament of the heavens to give light on the earth, 18 and to rule over the day and over the night, and to divide the light from the darkness.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19 So the evening and the morning were the fourth day.

20 Then God said, “Let the waters abound with an abundance of living creatures, and let birds fly above the earth across the face of the firmament of the heavens.” 21 So God created great sea creatures and every living thing that moves, with which the waters abounded, according to their kind, and every winged bird according to its kind.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22 And God blessed them, saying, “Be fruitful and multiply, and fill the waters in the seas, and let birds multiply on the earth.” 23 So the evening and the morning were the fifth day.

14 하나님이 이르사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창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15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바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6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드사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사 17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바추게 하시며 18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9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더라

20 하나님이 이르사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날으라 하시고 21 하나님이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2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사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23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더라

**Review – Genesis 1:3-13**

The French philosopher Jean-Paul Sartre and many others beside have stated the essential problem of philosophy. The problem can be expressed as follows. Why is there something, instead of nothing? Secular philosophers have great difficulty answering such a question. But as believers this conundrum should not faze us.

There is something rather than nothing because an eternal all powerful creator chose to act. He spoke all that we now see into existence. Last time we looked at the beginning of God's creative work. We spent some time examining the first three days of the creation week. As I told you before throughout the whole creation process we see a recurring pattern. We see God separating or dividing two things and then filling the space He has created with something good. We certainly saw this pattern during the first three days.

As I told you the exact length of the “days” of creation is a hotly debated subject. As strange as it may sound people argue over how long a “day” really is. Some claim that we should understand the “days” of creation in a figurative or poetic sense. They are not to be understood as literal 24-hour-days. Those holding this position argue that the “days” are in fact very long periods of time

(millions or billions of years). This is a theory known as the “day age theory.” This theory allows its proponents to insert the millions (billions) of years scientists claim are needed for evolution to work. Actually no amount of time would be enough for the fantasy of evolution to work.

What are we as believers to make of their claims? Is there any truth to what they claim? Let us begin by affirming that it is certainly true that the word “day” is used in several different ways throughout the bible, and even in Genesis. It doesn't always mean a literal 24-hour-day. However, and this is the big take-away here, when we see the Hebrew word for “day” (*yom*) attached to either a number or the words “evening and morning” it almost always indicates a literal 24-hour-day. So to put it simply in almost every case when we see this pattern in scripture a day means a day.

Also when we look at the word in context and reason through things carefully it clearly points to the creation day being a “day” as we think of it. But by far the strongest evidence is seen in what God says to Moses in Exodus (chapter 20). God reveals to Moses the importance of the day of rest; the sabbath. He reminds Moses that He created all things in six days and then rested on the seventh. This sets the pattern for our working week. We work for six days and then have a day off from work. Any other interpretation of what this means makes no sense. I believe therefore that the bible teaches that God created all that exists in six literal 24-hour-days. Let us briefly review the first three days of creation.

God began His creative work by creating light. In the Hebrew His command was, “**Become light! And became light!**” There are differing opinions on what exactly this light was. We should remember that the sun, moon and stars were not created until day four. Some think therefore that God either made a temporary light source, or else provided the light Himself. Whatever the case God's first act of creation is to bring natural light into existence.

God was pleased with the light and purposefully divided it from the dark. From this time on each would have their own rigid domain. The time that we are in sunlight God called the “day.” The part of the day in which the globe rotates away from the sun God called the “night.” All this took place on the first day.

The second day began with God creating a firmament. This was literally an expanse or an extended surface that God stretched out to divide the waters. God took some of the water up into the sky and placed it above the firmament. The remaining water was left on the earth. Again there is some debate as to what exactly this firmament was, what it looked like and how it operated. There has been a great deal of speculation over the years and I spoke about some of the most popular theories last time. I rather like the idea proposed by Dr Henry Morris. He thinks that it was a water vapour canopy that encircled the earth. But it is only a theory and we have no way of verifying it. God named the firmament “heaven” and the second day came to a close.

God was very busy on the third day. He began by gathering all the water that was upon the earth into one place. This water would become the seas, oceans, lakes and rivers that we see today. This act of bringing the water together revealed the land underneath. God named the waters “seas” and the land “earth.” The canvas is now set for God to begin His work filling this new land space He has created.

The next thing God does is create grasses, herbs and fruit bearing trees. These living things are created in particular “families” or kinds. I love to visit botanical gardens or arboretums. The world of botany is an endless source of fascination to me. It's fascinating to explore the many weird, wonderful and beautiful plants and trees that God created. Unless human beings intervene these plants and trees only ever produce plants and trees that look just like they do. Orange trees never produce seeds that over time turn into ginkgo trees! As I told you last time God did not create through macroevolution. Plants and trees reproduce through seeds and only ever produce offspring of the same kind.

God was pleased with what He had done. He declared it to be good. This brought to an end day number three. Today we will look at what God did on days four and five.

### 복습 창세기 1:3-13

프랑스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철학의 본질적인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 문제를 표현하자면 왜 아무것도 없는 것 대신에 무언가가 존재하는가? 세속 철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에게는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무가 아닌 무언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영원하고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행하기로 선택하신 결과입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을 보았습니다. 창조 주간의 첫 사흘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창조 과정 전체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을 분리하신 후, 그 창조하신 공간을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첫 사흘 동안의 창조 기간에 이런 패턴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창조의 "날 day"의 정확한 길이에 대한 열띤 논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하게도 □□□ "하루"가 실제로 얼마나 긴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들은 창조의 "날들"을 비유적이거나 시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 날들이 문자 그대로의 24 시간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러한 견해를 가진 자들은 이 "날들"이 사실은 매우 긴 시간(수백만 년 또는 수십억 년)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이론을 "day age theory"라고 부릅니다.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진화론에 필요한 수백만 년(수십억 년)이라는 시간을 끼워 넣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리 긴 시간도 진화론이라는 허황된 주장이 성립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들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들의 주장이 알리가 있을까요? 우선 창세기를 포함하여 성경 전체에서 "날 day"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단어가 항상 문자 그대로의 24 시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히브리어로 "날" (יום yom)을 뜻하는 단어가 숫자나 "저녁과 아침"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일 때는 거의 항상 문자 그대로의 24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성경에서 이러한 패턴으로 사용될 때 "날 day"은 하루를 의미합니다.

또한 문맥 속에서 사용된 단어를 신중하게 추론해 보면, 창조의 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증거는 출애굽기 20 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쉬는 날, 즉 안식일의 중요성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옛날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음을 상기시키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주일 근무 방식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옛날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24 시간씩 6 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가르칩니다. 창조의 첫 삼일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면서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의 명령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빛이 되라 그러자 빛이 되었다! Become light! And became light!** 이 빛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일사적인 광원을 만드셨거나, 아니면 직접 빛을 제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행위는 자연광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에 만족하셨고 어둠과 빛을 분리하셨습니다. 이때부터 빛과 어둠은 각자의 영역을 갖게 되었습니다. 빛이 있는 시간을 하나님은 "낮"이라 부르시고, 지구가 빛에서 멀어지는 시간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첫째 날에 일어났습니다.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궁창을 창조하시면서 시작합니다. 궁창은 말 그대로 넓은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물을 분리하실 공간입니다. 하나님은 물의 일부를 하늘로 들어 올려 궁창 위에 두셨고, 나머지 물은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이 궁창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떻게 작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추측이

있었고, 지난주에 가장 널리 알려진 몇 가지 이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헨리 모리스 박사가 제안한 이론이 마음에 듭니다. 그는 공창이 지구를 둘러싼 수증기 덮개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론일 뿐이며, 이를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셨고, 둘째 날이 끝났습니다.

셋째 날에도 하나님은 매우 바쁘셨습니다. 먼저 지구에 있던 모든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셨습니다. 이 물은 오늘날의 바다, 대양, 호수, 강이 되었습니다. 물을 모으자 그 아래 있던 땅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물을 "바다seas"라, 땅을 "땅earth"이라 부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새로 생겨난 땅을 채우기 위한 창조를 할 환경이 준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땅에 풀, 채소, 열매 맺는 나무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생물들은 특정한 "종류" 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저는 식물원이나 수목원을 방문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식물학의 세계는 저에게 끝없는 매력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이하고, 경이롭고, 아름다운 식물과 나무들을 탐험하는 것은 정말 매혹적입니다.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한, 이 식물과 나무들은 자신과 똑같이 생긴 식물과 나무만을 만들어냅니다. 오렌지 나무는 시간이 지나도 은행나무로 자라는 씨앗을 절대 맺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거대 진화를 통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식물과 나무는 씨앗으로 번식하며 항상 같은 종류의 후손만 생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이루신 일에 만족하셨고 그것이 좋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셋째 날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넷째 날과 다섯째 날에 하신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14 Then God said, “Let there be lights in the firmament of the heavens to divide the day from the night; and let them be for signs and seasons, and for days and years; 15 and let them be for lights in the firmament of the heavens to give light on the earth”; and it was so.**

Day number four begins. God momentarily turns His attention away from the earth to focus upon the heavens. I want to highlight an interesting pattern that we see here. The creation days of 4 to 6 directly correspond with the days 1 to 3. That is, what God creates in each of these last three days is placed in the setting He created on the corresponding earlier day. So here on day four God returns to the work He completed on day one.

God creates the heavenly bodies; the sun and the moon. He sets these in the firmament a place we would today describe as space or “outer space.” It’s worth just pausing at this point to highlight just how precise this placement needed to be. God didn’t just plonk the sun and moon down. They were instead very carefully positioned to ensure that life on earth could thrive. Let me briefly tell you a little about the sun. Dr Corrado from the Institute of Creation Research states it.

*“Our sun plays an essential role in the activity of our solar system and Earth’s unique ability to support life. The sun exhibits an intricate design, a delicate balance, and displays the incredible intelligence of its Designer.” (Our Sun, Finely Tuned for Life on Earth by Jonathan K. Corrado – March 06, 2023)*

The Earth orbits the sun within a tight “habitable zone.” If any of a whole host of variables differed then this planet would become uninhabitable. If Earth were very slightly further from or even fractionally closer to the sun, a stable water cycle would be impossible. Also, small changes in the orbital tilt of our planet would massively impact our climate. The length of the earth’s rotation around the sun also matters. If the Earth’s rotation was slower, our days would be too hot and our nights too cool to support life. But of course God knew all of this in advance and designed things in the perfect way.

God then assigns the heavenly bodies a particular purpose or function. They are given five purposes in scripture. Four are outlined here and the fifth can be found in Psalm 19. Let me read the appropriate verse.

**The heavens declare the glory of God;  
And the firmament shows His handiwork.  
(Psl 19:1)**

In case you missed it the heavenly bodies are designed to declare God's glory.

Let us look at the four intended purposes mentioned here in Genesis. Firstly, and perhaps most obviously the heavenly bodies are designed to divide the day from the night. We know that the day is over when the earth rotates away from the sun and darkness descends. Likewise as we turn into the light of the sun we awake and begin the day.

Secondly they are to serve as signs that mark the passing of the seasons. The idea of their acting as signs may be understood in two ways. The first is carried in the idea that these visually arresting things in the sky serve as constant reminders of our awesome creator God. As we see, and more importantly recognise their importance we should be drawn to praise God and glorify Him for His creation.

The second idea conveyed here is that the heavenly bodies act as guides for navigation. As we travel from place to place we use signs to help guide us in the right direction. Today we have GPS and satellites to guide us but prior to the modern age people navigated their course by observing the stars. Stars and constellations can be incredibly useful aid in this.

I should perhaps point out at this point that God never intended human beings to use the stars as a way of trying to foretell our futures. The practice of astrology is an occult practice that God expressly forbids (Deu 18:10-14). God specifies astrologers as being among those who will be burned as stubble in God's judgment (Isaiah 47:13-14). So I very strongly urge you not to look at your horoscope even just for a bit of "harmless" fun. Have nothing to do with these unfruitful works of darkness.

The fact that seasons could be determined from creation week means that the earth's axis was already tilted at this point. If the earth's axis were straight then we would not experience seasons. I found this interesting comment on the NASA science website (aimed at children) regarding why the earth is slightly tilted on its axis.

*Long, long ago, when Earth was young, it is thought that something big hit Earth and knocked it off-kilter. So instead of rotating with its axis straight up and down, it leans over a bit. (what causes the seasons - <https://spaceplace.nasa.gov/seasons/en/>)*

I have a much more plausible answer to what caused the earth to be tilted and for seasons to exist. It was God's design from the beginning. Once again this demonstrates the awe-inspiring intelligence of our creator God.

The idea of cosmic signs serving to mark the seasons has a long history. The Egyptians and Greeks knew of the zodiac and used it to accurately measure the beginning of spring centuries before the time of Christ. It was also very important that God's people could determine the times and seasons so that they would know when to celebrate the sabbath along with the other feasts and festivals they were commanded to follow.

Thirdly the heavenly bodies served to mark days and years. We mark the passage of a "day" by the earth's rotation on its axis. It takes 24 hours. A "year" marks the time it takes the Earth to complete a single revolution around the sun. As I am sure you are all aware it takes the earth 365 days, 5 hours, 49 minutes, and 12 seconds of mean solar time to make a single revolution.

Fourthly and finally the sun and moon were designed to give light. Actually the sun generates light through nuclear fusion. The moon is merely a passive reflector.

It might look to the naked eye as if it is generating light but in fact it is merely reflecting the light from the sun. Verse 15 ends by telling us that it was so. Everything that God set in place was good and perfect.

Let us continue.

**14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

## 루게 하라 15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중에 있어 땅을 바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라

넷째 날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사선을 하늘로 돌리십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패턴이 있습니다. 창조 4 일에서 6 일까지는 1 일에서 3 일까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4-6 일 동안 창조하신 것들은 각각 1-3 일째 창조하신 환경에 들어 맞습니다. 따라서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 완성하신 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천체, 즉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오늘날 우리가 우주 또는 "외계 공간"이라고 부르는 공간에 두십니다. 여기서 이들의 배치가 얼마나 정확해야 했는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을 그냥 아무렇게나 놓지 않았습니다. 지구상의 생명이 번성할 수 있도록 매우 신중하게 배치하셨습니다. 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조 연구소의 코라도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태양은 태양계 활동과 지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태양은 정교한 설계와 섬세한 균형을 보여주며 창조주의 놀라운 자혜를 드러낸다.” (조나단 K. 코라도 저, 『지구의 생명을 위해 정교하게 조율된 우리 태양』 - 2023 년 3 월 6 일)

지구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구역habitable zone” 이 될 범위 내에서 태양 주위를 공전합니다. 수많은 변수 중 하나라도 달라지면 지구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행성이 됩니다. 지구가 태양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멀어지거나 또는 아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면 안정적인 물 순환이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지구 궤도의 기울기가 조금만 변해도 기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지구의 공전 주기 또한 중요합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느리다면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추워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완벽하게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체들에게 특정한 목적을 부여하셨습니다. 성경에 다섯 가지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는 여기에 간략히 설명되어 있고, 다섯 번째는 사편 19 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구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사편 19:1)

천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 창조되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에 언급된 천체들의 네 가지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리고 아마도 가장 분명한 목적은 천체들이 낮과 밤을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지구가 태양에서 멀어지면서 어둠이 내리면 낮이 끝납니다. 반대로 지구가 태양의 빛을 향해 나아가면 잠에서 깨어나 하루를 시작합니다.

둘째, 천체들은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하늘에 떠 있는 이 놀라운 천체들이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천체들을 보고, 더 나아가 그 중요성을 깨달을 때,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천체들이 항해를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안내하는 이정표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GPS 와 위성을 통해 길을 찾지만, 현대 이전 시대에는 사람들이 별을 관찰하여 항로를 찾았습니다. 별과 별자리는 이러한 항해에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별을 이용하여 미래를 잡치도록 의도하신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성술은 하나님께서 명백히 금하신 마신 행위입니다(신명기 18:10-14). 하나님께서는 점성술사들을 하나님의 심판 때 짚처럼 불타 없어질 자들로 정하셨습니다(이사야 47:13-14). 그러므로 여러분은 설령 "무해한" 재미로라도 결코 별자리 운세horoscope 를 보시는 안된다고 강력히 권고합니다. 이러한 열매 없는 어둠의 행위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창조 주간부터 계절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지구의 자전축이 이미 기울어져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지구의 자전축이 똑바로 서 있었다면 계절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NASA 과학 웹사이트(어린이를 대상으로 함)는 지구의 자전축이 약간 기울어진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흥미로운 설명을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지구가 젊었을 때 어떤 커다란 물체가 지구와 충돌하여 자전축의 균형을 무너뜨린 것 같다. 그래서 지구는 자전축을 똑바로 세우고 회전하지 않고 약간 기울어져게 되었다 (계절의 원인 - <https://spaceplace.nasa.gov/seasons/en/>)*

저는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와 계절의 발생 원인에 대해 훨씬 더 타당한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설계였습니다. 이는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보여줍니다.

계절을 알리는 우주적 신호에 대한 생각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과 그리스인들은 황도 12 궁 zodiac 을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기원전 수세기 부터 봄의 시작을 정확하게 측정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인식일을 비롯한 여러 절기와 축제를 지켜야 할 때를 알 수 있도록 시기와 계절을 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셋째로, 천체는 날과 해를 나타내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지구의 자전으로 하루가 결정되는데, 그것은 24 시간입니다. "1 년"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이고, 그 공전 주기는 태양 평균사로 365 일 5 시간 49 분 12 초가 걸립니다.

넷째로, 해와 달은 빛을 비추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태양은 핵융합을 통해 빛을 생성합니다. 달은 단지 태양빛을 반사하는 수동적인 역할을 합니다.

맨눈으로 보면 달이 빛을 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 태양빛을 반사하는 것뿐입니다. 15 절은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다고 언급하고 □□□□□.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고 완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16 Then God made two great lights: the greater light to rule the day, and the lesser light to rule the night. He made the stars also.**

The sun and moon are pictured here as two “great lights.” The sun, the greater of the two rules or governs the day, and the moon the lesser light governs the night. To say that the sun is the greater is an indisputable reality.

The sun is by far the most massive object in our solar system. In fact 99.9% of the total mass of our solar system comprises the sun. It is our solar systems only star. It has a diameter of 1.4 million km which is 109 times that of the earth. A million earth sized planets could fit inside the sun. The suns surface temperature is a slightly warm 5000 degrees centigrade. Its core temperature has been estimated at being around 15,000,000 degrees centigrade. As you are all aware life upon this planet is dependent upon the sun.

By comparison the moon is rather small. It has a diameter of 3,474 km a quarter the size of the earth. If the earth were hollow it would require about 50 moons to fill it. This is not of course to suggest that the moon is unimportant. Far from it. The Moon plays a crucial role in shaping life on Earth. For example the Moon helps keep the Earth’s axis steady. This gives us relatively stable seasons. Without the moon the Earth’s climate would be far more chaotic. The moon's gravity also causes ocean tides. This has an impact on marine ecosystems, coastal environments, and even ocean circulation. So we need both the sun and the moon.

At the time Genesis was written, many cultures worshipped the sun, moon, and stars as if they themselves were gods. The moon gods of Mesopotamia are known from as early as the third millennium BC. The sun deity was of great importance to the Babylonians, who worshipped Shamash, and to the Egyptians, who paid homage to Re (aka Ra). The claim of the Bible is that these "lights" are not deities. They are not objects worthy of adoration or worship. They are merely

created things made by the one, true God. This would have been especially meaningful to the people of Moses' day, when many nations were dominated by belief in gods of the sun, moon, stars, and skies.

## 16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드사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을 만드사고

여기서 태양과 달을 두 개의 "great lights" 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둘 중 더 큰 태양은 낮을 주관하고, 더 작은 달은 밤을 주관합니다. 태양이 더 크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태양은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질량이 큰 천체이고, 실제로 태양이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9%를 차지합니다. 태양은 우리 태양계의 유일한 항성입니다. 지름은 140만 km 로 지구의 109 배에 달하고, 지구 크기의 행성 백만 개가 태양의 내부를 채울 수 있을 만큼 큼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는 섭씨 5000 도이고, 태양 핵의 온도는 약 섭씨 15,000,000 도로 추정됩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태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달은 상당히 작습니다. 달의 지름은 3,474km 로 지구 크기의 4분의 1 에 불과합니다. 만약 지구가 속이 비어 있다면 지구를 채우기 위해 약 50 개의 달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래서 달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달은 지구 생명체가 정상 작동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달은 지구의 자전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덕분에 우리는 안정적인 계절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달이 없다면 지구의 기후는 훨씬 더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또한 달의 중력은 조수를 일으킵니다. 이는 해양 생태계, 해안 환경 심지어 해류 순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태양과 달 모두가 필요합니다.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 많은 문화권에서는 태양, 달, 별을 마치 신처럼 숭배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달의 신은 기원전 3 천년경부터 알려져 있습니다. 사마쉬를 숭배했던 바빌로니아인들에게 태양신은 매우 중요한 존재였으며, 이집트인들은 레(또는 리를) 숭배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빛" 들이 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들은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단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일 뿐입니다. 이는 태양, 달, 별 하늘 신들을 숭배하는 신앙이 지배적이었던 모세 시대 사람들에게 특히 의미 있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We are then told that God made the stars also. The Hebrew word for star is *kokab*. It includes any "small" (from our perspective) bright heavenly object. Included here then would be stars, meteors, and comets. This amazing statement is almost added as an after- thought. It's like God saying, "Once I finished making the sun and moon I then knocked out a few stars." How breathtakingly simple that statement is, especially when we consider exactly what it entails. Just consider for a moment the vast size and scale of the universe.

Let's take some time to unpack the reality that God created the stars. The figures I am about to astound you with are taken from Jonathan Sarfati's book (The Genesis Account).

The observable universe has been estimated to have a radius of at least 46 billion light years. Astrologers have proposed that there may be as many as 10 to the power of 22 stars (10,000,000,000,000,000,000,000).

This number is so vast that even with a computer that could count a trillion stars a second it would still take you 300 years to count this massive number!

Or, if your mind hasn't burst yet what about the following.

The distance from the Sun to the centre of our galaxy (Milky Way) is approximately 30,000 light years. A light year represents the distance light travels in one year. Travelling at 186,000 miles per second means we are talking about a distance of 6 trillion miles. But just how far is that really? It's hard to wrap our minds around such a figure.

So let's conduct a thought experiment. Let's suppose we could shrink the universe down to 2 billion times smaller than its current size. At that scale the Earth is now a mere 0.6 cm in diameter. The distance from the Earth to the moon is 19 cm. The Sun in this scale measures 74 cm in diameter. It

is 76 meters away from the earth. A light year in this miniscule universe is now 3000 miles long. Are you ready for it? Even at this greatly reduced scale the distance from the sun to centre of our galaxy (the Milky Way) is 90 million miles. The size and scale of the universe God designed is simply mind-boggling

But to our awesome God it was just the work of one day.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별들도 만드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별은 '코카브(kokab)'입니다. 이는 우리가 보기에 '작고 밝은 천체들, 즉 별, 유성, 혜성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 놀랍도록 대단한 선언이 마치 별 뜻없이 덧붙이는 말처럼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다 만들고 나서 별 몇 개도 만들었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창조 의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얼마나 놀랍도록 단순한지 감탄하게 됩니다. 잠시 우주의 광대한 크기와 규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별들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놀라운 수치는 조나단 사르파티의 저서(창세기)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관측이 가능한 우주의 반지름은 최소 460 억 광년으로 추정됩니다. 천문학자들은 별의 수가 10의 22 제곱(10,000,000,000,000,000,000,000)개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숫자는 너무나 방대해서 1 초당 1 조 개의 별을 셀 수 있는 컴퓨터로도 이 엄청난 숫자를 모두 세는 데 300 년이 걸릴 것입니다!

혹시 아직 머리가 터질 것 같지 않다면 다음을 생각해 보세요.

태양에서 우리 은하(은하수 the Milky Way galaxy) 중심까지의 거리는 약 3 만 광년입니다. 1 광년은 빛이 1 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입니다. 빛이 초당 18 만 6 천 마일(약 30 만 6 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이동한다고 가정하면, 1 광년은 6 조 마일(약 1,100 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얼마나 먼 거리일까요? 우리가 이런 수치를 상상하는 것조차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생각 실험을 해봅시다. 우주를 현재 크기의 20 억분의 1 로 줄인다고 가정합니다. 이 축척에서 지구의 지름은 고작 0.6cm 에 불과합니다.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19cm 입니다. 이 축척에서 태양의 지름은 74cm 입니다. 태양은 지구에서 76m 떨어져 있습니다. 이 아주 작은 우주에서 1 광년은 3,000 마일(약 4,800km)에 해당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렇게 많이 축소된 축척에서도 태양에서 우리 은하(은하수) 중심까지의 거리는 9 천만 마일(약 14,500 만 km)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우주의 크기와 규모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단 하루 만에 이루셨습니다.

**17 God set them in the firmament of the heavens to give light on the earth, 18 and to rule over the day and over the night, and to divide the light from the darkness.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19 So the evening and the morning were the fourth day.**

You will note here in verses 17 and 18 that we get a restatement of things we have previously read. This is actually a common literary device used in Hebrew literature. Its technical name is a *chiasm* (pronounced ky-az-um). It works as follows. The words of the first section of a passage are repeated in inverted order in the second. This serves to emphasize the central idea of what is being described. Let me lay out how it works.

A	"to separate the day from the night"	Verse 14
B	"be for signs and for seasons and for days and for years"	Verse 14
C	"to give light on the earth"	Verse 15

D	"to govern the day"	Verse 16
D	"to govern the night"	Verse 16
C	"to give light on the earth"	Verse 17
B	"to govern the day and the night"	Verse 18
A	"to separate the light from the darkness"	Verse 18

When viewed through this precise literary construction the central point becomes all the more clear. The heavenly bodies are not gods. Instead we are to understand them as being things created with a particular purpose by the One True God. That purpose as we have just examined comprised four functions. When this was done God surveyed His work and declared it good.

**17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바치게 하시며 18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9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17 절과 18 절을 보면 이전의 내용이 다시 언급됩니다. 이것은 히브리 문학에서 흔히 사용되는 문학적 기법으로 전문 용어로는 *□□□(chiasm)*이라고 합니다. □□□□□□ □□ □□□□□. 구절의 앞부분에 나오는 단어들을 뒷부분에서 순서를 바꿔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묘사되는 내용의 중심 사상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작동 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	"to separate the day from the night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Verse 14
B	"be for signs and for seasons and for days and for years 창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Verse 14
C	"to give light on the earth 땅을 바추라 하시니"	Verse 15
D	"to govern the day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Verse 16
D	"to govern the night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Verse 16
C	"to give light on the earth 땅을 바치게 하시며"	Verse 17
B	"to govern the day and the night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Verse 18
A	"to separate the light from the darkness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Verse 18

이러한 정확한 문학적 구조를 통해 살펴보면 핵심 요점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우주의 천체들은 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천체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존재들로 이해해야 합니다. 방금 보았듯이, 그 목적은 네 가지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후, 자신의 창조물을 보시고 좋다고 선언하셨습니다.

**20 Then God said, “Let the waters abound with an abundance of living creatures, and let birds fly above the earth across the face of the firmament of the heavens.”**

We move now into day five. As I said to you before we see a pattern whereby day 5 corresponds with God's work on day 2. On day two God divided the waters. In doing so He created an expanse, the air (sky) which He will now fill. However before doing that He will also first address the issue of the water that He gathered together and called seas. It's clearly not desirable to have all this water unoccupied, so God creates an abundance of living creatures to dwell in this space. Let me give you some idea of what we mean by the word “abundance.” Estimates for the number of species of fish worldwide range from between 25,000 – 35,000. That's just fish. So we are not talking about all the other things that call the sea home.

What's your favourite sea creature? Maybe you are fond of dolphins, turtles, seals, sea otters, whales, octopus, manatees, sharks or crabs. These creatures all featured in a list of top ten sea animals conducted by a popular website (the top tens).

My own personal favourite is the seahorse. They belong in the genus Hippocampus. The name derives from two Greek words, *hippos* meaning "horse" and *campus* meaning "sea monster." So literally they are "horse sea monsters." The largest species of seahorse is the pot-bellied or big bellied seahorse (*Hippocampus abdominalis*). The largest specimen ever recorded measured a whopping 35 cm in length! So it's not really much of a sea monster! I'll talk about some real sea monsters in a moment.

God also turned His attention to filling the air. He created a whole range of flying creatures. The Hebrew word that's translated here in English as "birds" (*oph*) has a much broader meaning than merely birds. It refers to all flying creatures. So included here are naturally birds, but also bats and other flying creatures like pterosaurs. Again it is worth highlighting just how many different species of bird God created. The number of different bird species seen today range from between 15,000 to 18,000.

It's also worth contrasting what God says happened here with what evolutionary scientists say happened. God remember was there so I know who I'd choose to believe.

Evolutionist insist that flying creatures (the birds) evolved from sea creatures that crawled up onto the land and over millions of years eventually became birds. You can see on the screen the proposed evolutionary tree of life. God who was there tells us that this is not how things happened. The creatures of the sea and the creatures of the air were created on the same day.

Let us continue.

**20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 날으라 하시고**

이제 창조 다섯째 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섯째 날은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과 연결되는 패턴을 보입니다. 둘째 날에 하나님은 물을 나누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궁창 즉 하늘을 창조하셨고, 이제 그곳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은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바다라 부르신 곳을 먼저 채우실 것입니다. 이 모든 물이 있는 공간에 아무 것도 없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거기서 번성할 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번성함 abundance"이라는 단어의 뜻을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어류의 종 수는 25,000 - 35,000 종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단지 물고기만 포함한 것이고,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는 다른 생물들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바다 생물은 무엇인가요? 돌고래, 거북이, 물개, 해달, 고래, 문어, 매너티, 상어, 게 등을 좋아할 수 있겠죠. 이 생물들은 모두 유명 웹사이트에서 선정한 '□□□□ 가장 좋아하는 바다 동물 10 가지 목록에 등장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해마(seahorse) 를 가장 좋아합니다. 해마는 히포캄푸스속(Hippocampus)에 속합니다. 이 이름은 그리스어 두 단어, 'hippos'는 '말', 'campus'는 '바다 괴물'에서 유래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말 바다 괴물'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큰 해마 종은 배불뚝이해마(Hippocampus abdominalis)이고,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개체는 겨우 35cm 에 달했습니다. 바다 괴물이라고 부르기에 좀 그렇죠. 진짜 바다 괴물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채우는 데로 관심을 돌리셨습니다. 그분은 다양한 종류의 날아다니는 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영어 단어 'birds'로 번역된 히브리어 *oph* 는 단순히 새 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날아다니는 생물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새뿐만 아니라 박쥐, 익룡과 같은 다른 날아다니는 생물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의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오늘날 볼 수 있는 새의 종류는 15,000 -18,000 종에 이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조 과정과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창조 과정을 비교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직접 목격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기에 저는 그분의 말씀을 믿습니다.

진화론자들은 바다에서 육지로 기어 올라온 생물들이 수백만 년에 걸쳐 날아다니는 새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화면에서 진화 계통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직접 목격하신 하나님은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다 생물과 하늘 생물은 같은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1 So God created great sea creatures and every living thing that moves, with which the waters abounded, according to their kind, and every winged bird according to its kind.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God set to work filling the seas with all kinds of amazing creatures. Those initial seas were full of all manner of things some of which are no longer in existence today. I am thinking here are what are termed prehistoric sea creatures. Fearsome creatures like Mosasaurs, Megaladon, Plesiosaurs and Basilosaurus. Also included here are the animals we see today such as whales, sharks, dolphins, octopus and squid. Fossil remains have shown that many of these were very much bigger in the past. We have for example discovered a dolphin like creature that measured 21 metres in length. It would have been fun to see that jumping out of the water at Seaworld!

You will note here that Moses expressly tells us the God created “great” sea creatures. The word “great” in this context means “big or large.” This is probably included to combat the beliefs many primitive people had about these large sea dwelling creatures. They believed them to be gods.

So the message here is quite simple. These awesome sea creatures that are so mighty and powerful were created by God. It is Him and not the creatures He created that are worthy of worship. I should I suppose also point out that God made living things of all shapes and sizes.

When I was in elementary school we would often sing the hymn “All things bright and beautiful” during school assemblies. The hymn was written by Cecil Frances Alexander in 1848. The first verse goes as follows,

**All things bright and beautiful,  
all creatures great and small,  
all things wise and wonderful,  
the Lord God made them all.**

It is a hymn written primarily for children. But it beautifully captures the wonder and diversity of creation and that God was responsible for all of it.

God also filled the air with all manner of flying things. Again this would have included things that are now extinct such as pterosaurs. These creatures are often referred to as flying dinosaurs but to be precise they were actually flying reptiles. Those ancient skies must have been wonderful to behold. Sparrows and all manner of other birds flying through the air with pterosaurs, giant dragonflies and a myriad of other flying insects.

Once again the idea of God assigning each animal its own kind is highlighted. It was never God's design that living creatures would evolve from one kind into another.

The work for day five is now complete. God looks out at the things He has created and calls them all good.

Let us read on.

**21 하나님이 꺻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꺻 꺻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온갖 놀라운 생물들로 바다를 채우셨습니다. 태초의 바다에는 현재는 멸종한 생물들을 포함하여 온갖 종류의 생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여기에는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 시대에 살았던 해양 생물들이 포함됩니다. 모사사우루스, 메갈로돈, 플레시오사우루스, 바실로사우루스와 같은 무시무시한 생물들이죠 또한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고래, 상어, 돌고래, 문어, 오징어도 포함됩니다. 화석 기록을 통해 이들 중 많은 생물들이 과거에는 훨씬 더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이가 21 미터에 달하는 돌고래와 비슷한 생물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씨월드에서 그런 생물이 물 위로 뛰어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정말 재미있을 겁니다.

이 구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great" 바다 짐승들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서 "great"이라는 단어는 "big" 또는 "big" 또는 "large"라는 뜻입니다. 이는 아마도 많은 고대인들이 이런 거대한 바다 짐승들을 신으로 여겼던 믿음에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전하는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처럼 위대하고 강력한 바다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경배할 분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모습과 다양한 크기의 생명체를 만드셨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조회 시간에 찬송가 "모든 것이 밝고 아름답다 All things bright and beautiful"를 자주 불렀습니다. 이 찬송가는 1848년 세실 프랜시스 알렉산더가 작사했습니다. 첫 소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밝고 아름답다"**  
**"작은 모든 피조물"**  
**"모든 것이 자혜롭고 놀랍다"**  
**"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이 찬송가는 주로 어린이들을 위해 작곡되었지만, 창조의 경이로움과 다양성,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도 온갖 날아다니는 생물들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익룡처럼 지금은 멸종된 생물들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익룡은 흔히 날아다니는 공룡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날아다니는 파충류였습니다. 고대 하늘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참새를 비롯한 온갖 새들이 익룡, 거대한 잠자리, 그리고 수많은 날개 달린 곤충들과 함께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이 구절에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각 생물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체가 한 종류에서 다른 종류로 진화하도록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다섯째 날의 창조가 완료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읽어 봅시다.

**22 And God blessed them, saying, "Be fruitful and multiply, and fill the waters in the seas, and let birds multiply on the earth."**

This is the first mention in scripture of God pronouncing a blessing on something. Here he blesses the creatures of the sea and the creatures of the air. Later on this will become one of the great unifying themes of the Book of Genesis. God will go on to bless the animals (1:22), mankind (1:28), the Sabbath (2:3), Adam (5:2), Noah (9:1), and on a number of occasions the patriarchs (12:2-3; 17:16, 20, etc.).

His blessing here is centred on fertility and reproduction. The sea and airborne creatures are

commanded to be fruitful and multiply. In other words, God commands them to reproduce and blesses them with the ability to do so. In making this statement, Genesis is declaring that God is not only the creator of life, but He is the one who enables life to reproduce itself. He alone is the giver of fertility.

I think across much of the world today we have lost the idea of children being a blessing. The notion of children being something good and positive. Too often they are seen as being a hindrance and a burden. People very sadly say things like. They prevent me from living my life and doing what I want to do. They are parasites that suck all my resources away. Many young people have bought into this lie and have no intention of ever having children.

Others delay it for so long that by the time they come around to it its too late! The bible is quite clear on the subject. Children are a gift or a blessing from God.

**Behold, children are a heritage from the LORD, The fruit of the womb is a reward. (Psl 127:3)**

Children are to be seen as being a great joy. They bring so much happiness into our lives. This is not to say that there are never times when they are frustrating, rude difficult or challenging. But, they would probably say the same about us as parents. So let us be grateful that God has blessed us with our children and thank Him often for them.

Let us finish up today with the following verse.

**22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사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비닷물에 충만하라 □ □ □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축복하신 첫 번째 사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바다 생물과 공중 생물을 축복하십니다. 이는 나중에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은 동물(1:22), □ □(1:28), 안식일(2:3), 아담(5:2), 노아(9:1),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 족장들(12:2-3; 17:16, 20 등)을 축복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은 풍요와 번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다 생물과 공중 생물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번성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축복으로 주십니다. 창세기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생명의 창조자 뿐만 아니라 생명체가 스스로 번식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분이 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풍요를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축복이라는 생각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존재가 좋고 긍정적이라는 생각 대신에, 아이들이 방해물이고 짐이라고 여겨집니다. 슬프게도 사람들은 "아이들 때문에 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하고 싶은 일도 못 한다", "내 모든 것을 빨아먹는 기생충 같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잘못된 생각에 속아 아이를 낳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또는 너무 오랫동안 미루다가 마음을 바꿀 때쯤에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축복입니다.

**"보라, 아이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쁨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사편 127:3)**

아이들은 큰 기쁨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아이들은 우리 삶에 많은 행복을 가져다줍니다. 물론 아이들이 고단하게 하거나, 버릇없고, 까다롭고, 힘들 때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부모인 우리에게 똑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녀들로 인해 자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다음 구절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3 So the evening and the morning were the fifth day.**

The fifth day of the creation week draws to a close. The earth is now filled with a whole array of living creatures. The seas swarm with marine life, and the air is alive with flying things. The earth still lacks land animals and the creature that will be God's crowning achievement. The pinnacle of His work of creation. That, Lord willing will be the subject of next week's sermon.

**23 자취이 되고 야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창조 주간 다섯째 날이 저물어 갑니다. 땅은 이제 온갖 살아있는 생명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다는 해양 생물들로 넘쳐나고, 하늘은 날아다니는 생물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아직 땅에는 육상 동물과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이고 창조 □□□□□□ □□□□ □□□□ 다음 주 설교에서 바로 그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Lessons to learn**

I have two lessons drawn from today's study.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1. Appreciate God's handiwork**

Living as most of us do in the city it is easy to take God's amazing creation for granted. We often pay little heed of the natural world as we hurry about our day. In reality the only natural world we ever experience is contained in parks and public gardens. So I encourage you now and again to pause and reflect on God's amazing handiwork. Take some time to stop and admire a flower or tree. To watch the birds or some insects doing their thing. As you do reflect upon our truly awesome God who created this wonderful place for us to live.

**1. 하나님의 창조물에 감사하십시오**

우리 대부분은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을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자연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접하는 자연은 공원이나 수목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가끔씩 잠시 멈춰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목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꽃이나 나무를 감상하고, □□□□□□ □□□□ 하는 모습을 관찰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해 주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2. Remember that you are special**

I spoke during the sermon about the great abundance of fish and bird species God created. Perhaps are many as 35,000 different species of fish, 15 -18,000 species of bird. These numbers are tiny when compared to the vast variety of insects God created. Estimates for the number of insect species are around 900,000 different species. That's probably a conservative estimate. Of these 300,000 are different kinds of beetle. God seems to have a particular fascination with beetles. So perhaps given this amazing range we might think that human beings are just another part of creation. That we are just another creature God created. In one sense that is true. We are a creature and God created us. But, there is something special and unique about us. We are distinguished from all the other things on this earth. We, and nothing else were created in God's image. That makes us VERY special. How special you may ask. I'll gladly tell you. So special that God sent His precious Son to suffer and die in order to save you. That's how special you are. The other living things on this planet are important to God, but only for you was He willing to die. Never forget this fact.

**2. 당신이 특별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수많은 물고기와 새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물고기는 약 35,000 종, □□ 15,000 - 18,000 종에 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양한 곤충들에 비교하면 미미합니다. 곤충 insects 종의 수는 약 90 만 종으로 추산됩니다. 아마도 이는 최소한으로 추정한 수치일 것입니다. 이 중 30 만 종이 딱정벌레beetles 입니다. 하나님은 특히 딱정벌레에 매료되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생물의 다양성을 보면 인간도 그저 창조 세계의 일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또 다른 피조물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특별하고 독특한 점이 있습

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과 구별됩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매우 특별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얼마나 특별해나고요? 기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귀한 아들을 보내어 고난받고 죽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만큼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생명체들도 하나님께 중요하지만, 그분은 오직 당신을 위해 가까이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